

과학자의 눈, 예술가의 눈, 그리고 잠자리의 눈

글 | 정현이 _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 haema@hansung.ac.kr

아 이와 함께 한 과학탐험관에 갔다가 ‘잠자리의 시각 체험’이란 코너를 만났다. 비슷비슷한 그런 종류의 탐험관을 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의무방어진 치르듯 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중이었는데, 순간 머릿속 전구에 반짝 불이 들어왔다. 잠자리는 몸집에 비해 눈이 엄청나게 크다. 더구나 1만여 개의 홑눈이 모인 겹눈 두 개를 가지고 있다니 도대체 잠자리가 보는 세계는 어떤 것일까 늘 궁금했었다. 2만 개의 눈으로 본 세계와 인간의 눈으로 본 세계를 같은 세계라고 할 수 있을지, 만일 잠자리의 지능이 인간과 비슷하다면 잠자리가 파악한 세계, 혹은 그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진실은 인간이 파악한 세계에 대한 지식과 같은 것일지, 그러니까 잠자리에게도 여전히 달과 우주가 인간이 파악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차원이 달라지는 건지 내심 궁금해 하면서도 스스로 이걸 그저 엉뚱한 호기심이라니, 마음 한편에 밀어두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그 ‘잠자리 시각 체험’을 과학탐험관에서 마주쳤으니, 잠자리의 눈이 미술가뿐만 아니라 과학자에게도 호기심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원통형 체험 기구를 들여다보는데 심장이 다 두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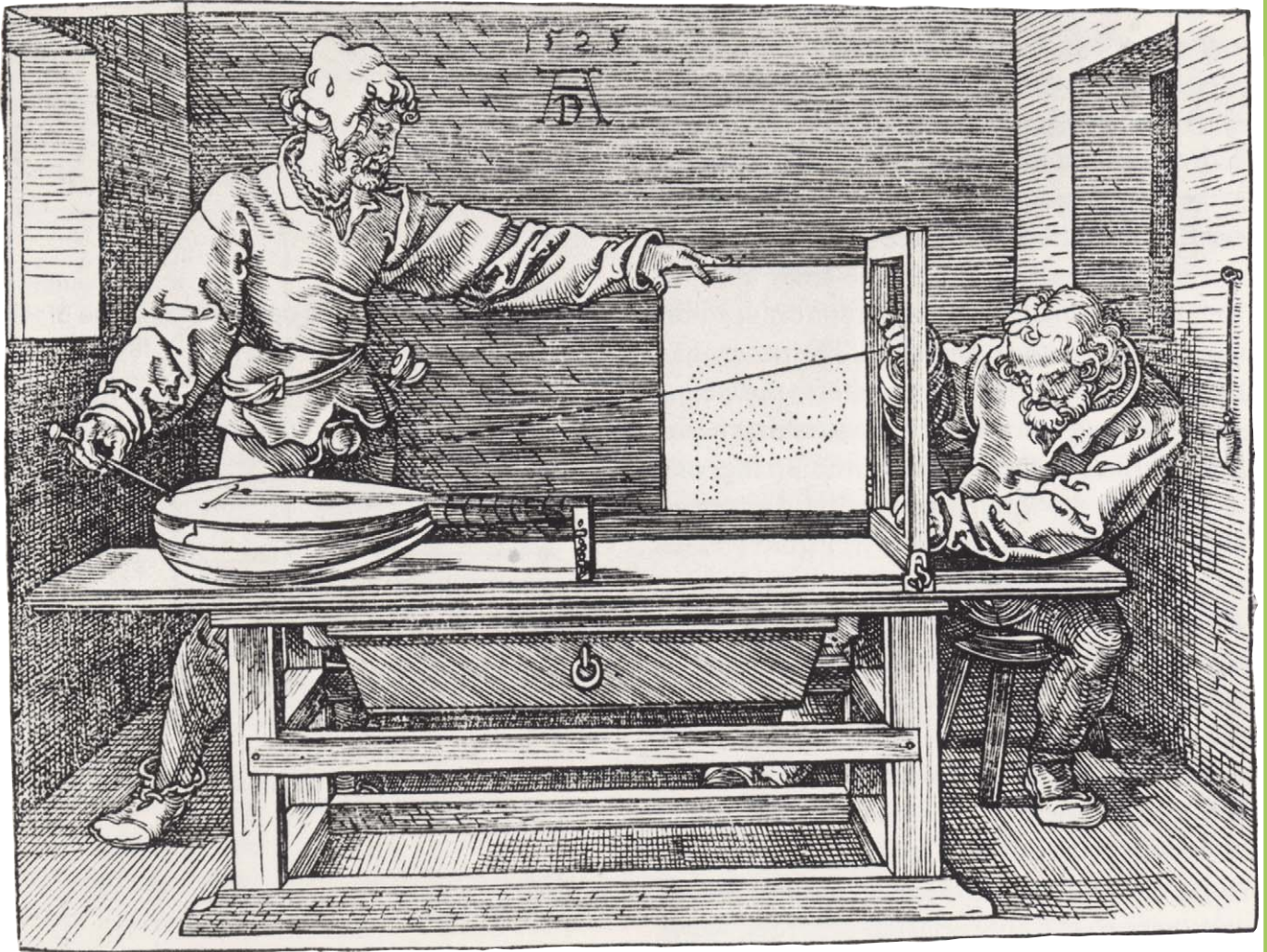
관람자를 부동의 주체로 확립시키는 ‘선원근법’

하긴, 생각해보면 과학자와 미술가에게 ‘관찰’은 매우 중요한 공통분모이다. 서양 르네상스 시대 과학과 미술의 만남도 ‘시각’을 둘러싼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세계를 인간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미술가들은 선원근법이란 것을 고안해내게 된다.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루트를 그리는 남자’란 제목의 목판화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시각 이미지는 소실점에 해당하는 오른쪽 벽의 한 지점(눈의 위치)과 대상을 잇는 직선들에 의해 산출된다. 대상의 각 지점들로부터 눈을 향해 모이는 직선들은 원추형의 시각 피라미드를 형성하게

되고, 이 시각 피라미드 안에 위치한 어떤 지점에 화면이 위치한다고 볼 때 가장 정확한 시각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소실점(눈)이며, 이 소실점을 향해서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기술이 바로 원근법이다.

르네상스 이전에도 사실적인 그림들은 있었다. 폼페이에서 발굴된 로마시대 유적지에서는 사실적인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린 벽화가 다수 남아있고, 중세의 세밀화들은 종교적 주제를 다루면서 천사나 성자들, 교회 공간 등을 정교하게 표현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들은 그 사실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소실점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적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려진 대상들이 화면에 동등 떠다니는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계속 움직이는 관람자를 위해 부분 부분을 정지시킨 형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선원근법의 고안과 함께 이제 관람자는 관람(관찰) 행위에 있어서 부동의 주체가 된다. 시선의 대상 역시 이 부동의 주체를 위해 고정된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인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주관적인 주체가 확립되는 것이다. 선원근법이 이후 코페르니쿠스(1473~1534)와 갈릴레이(1564~1642)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그런데 원근법은 과연 인간이 세계를 본대로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원근법은 인간의 눈을 카메라렌즈로 기능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카메라처럼 눈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며(심안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다), 카메라 렌즈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알이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 두 개의 눈과 뇌가 함께 작동하는 인간 시각의 메커니즘은 카메라 렌즈와는 달리 보다 포괄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배운대로 보는 것이 많다. 그리고 눈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미지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는



알브레히트 뒤러, <루트를 그리는 남자>, 1525. [기하학에 관한 예술가의 논문](1525)의 목판화 도판

오늘날, 세계를 이미지가 대체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는 3차원이건만 외눈박이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보는 방식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 외눈의 기원은 사실 매우 권력적인, 고정된 주체의 탄생의 자리, 원근법이다.

포스트 모던, 원근법적인 시선으로부터 해방 추구

르네상스 시대를 인본주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는 신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인류의 새로운 탄생, 근대의 출발이었다. 인본주의를 기점으로 이성애 근거한 합리주의가 싹트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그 모든 미덕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인간이라는 소실점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 다분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포스트모던'이 '반-인본주의'를 외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포스트 모던'은 관점의 다양성과 혼성성을 받아들인다. 자아를 주관하는 하나의 권력적 주체를 부정하고 타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로서의 주체를 연구한다. 나의 시각은 애초

에 나에게 본질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의 시각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비로소 생산되고 드러난다.

흔히 '눈이 많다'라는 표현은 '눈은 감시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감시하는 눈이야말로 원근법적인 시선이다. 어떻게 하면 원근법적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장엄한 화엄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과제이다.

잠자리 시각체험은 불행히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다. 고도의 난사라도 된 듯 모든 것이 여러 겹으로 겹쳐보였는데, 설명을 읽어보니 12겹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2만겹과 12겹의 낙차가 납득이 가지 않아 실망이 더욱 컸다. 차라리 장자처럼 꿈속에서 잠자리가 되어 2만 개의 눈을 달고 몽롱하게 날아볼까. ㉔



글쓴이는 이화여대 철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원에서 미술이론과 비평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갤러리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